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사순 제3주일
2023년 3월 12일
제2556호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이나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약이나 음식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애써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고 흔히 마음이나 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의 상처는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행복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도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고을에서 물을 길으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고 하니 힘들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은 몸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이심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하느님의 선물로서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선과 희생,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러한 실천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황인균 요셉 **신부**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

주일 전례

제 1 독 서	탈출 17,3-7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로마 5,1-2.5-8
복 음	요한 4,5-42 또는 4,5-15.19ㄴ-26.39ㄱ.40-42

성경공부는 인생학교

임나윤 데레사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오랜만에 산행을 하는데 낮은 산 중턱쯤이었는데도 체력이 벌써 바닥났다. 앉아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컨디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왔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기 구절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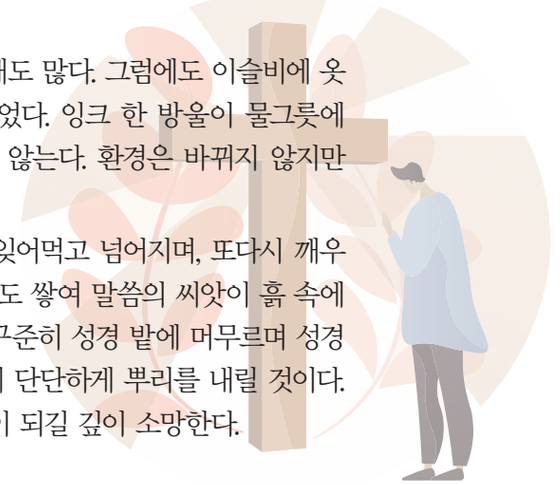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불안감이 안개 걷히듯 조금씩 사라지면서 컨디션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조금 쉬었으니 컨디션이 회복되었을 거라는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악화될지 회복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 구절은 몇 년 전 마산교구 성경암송대회 때 암송했던 부분이다. 또다시 성경공부를 하면서 가슴으로 만나며 암송을 했더니 성경말씀은 일상에서 살아있었다. 성경공부는 성경말씀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인생학교다. 주 1회 수녀님 강의를 들으며 신학적 접근보다는 우리 신앙과 삶의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또한 참가자들과의 만남은 영적 친구로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새벽 5시쯤의 첫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쓰기, 때로는 성경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만나기도 한다. 그 시간에 내 눈의 들보를 보며, 상대방의 티끌을 본다. 내 자리에서만 보이던 것이 상대방 자리에서 보이는 것도 보게 되었다. 부딪치는 인간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타협의 여지가 생겼다. 업무처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와 희생을 한다는 건 아니다. 선의와 연민을 갖되 선순환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지혜와 용기도 생겼다.

일을 하며 성경공부를 하러 다니는 게 때로는 버겁거나 제대로 못할 때도 많다. 그럼에도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말씀의 씨앗은 마음도 조금씩 넓혀 주었다. 잉크 한 방울이 물그릇에 떨어지면 물이 오염되지만, 연못이나 호수에 떨어지면 그 물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태도가 바뀌면 환경도 조금씩 바뀐다.

그동안 구약을 마치고, 올해는 신약을 공부하게 된다. 성경을 읽어도 잊어먹고 넘어지며, 또다시 깨우치고 일어서는 중이다. 성경공부라는 밭에 있으니 그곳의 흙이 내 자리에도 쌓여 말씀의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는 것 같다. 그 씨앗도 타성에 젖게 되면 또 말라버릴 수도 있다. 꾸준히 성경 밭에 머무르며 성경 읽기라는 적당한 물을 주고 기도라는 햇볕이 있다면 말씀의 씨앗은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씨앗이 '참 신앙인'이라는 나무로 자라 나의 삶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길 깊이 소망한다.



직수여미사 및 착의식

직수여미사 및 착의식이 2월 26일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문창우 비오 주교(제주교구장)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교구 신학생 연구과 2학년 임상영 토마스 아퀴나스(사파동), 박명제 대건 안드레아(고성) 2명이 시종직 수여를 받았으며, 연구과 1학년 박시원 베네딕토(고성), 조효광 프란치스코(고현) 2명이 독서직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학부 4학년 김도선 대철 베드로(덕산동), 하찬진 고르넬리오(명서동), 이하늘 프란치스코(장평), 조준형 가브리엘(거창), 신상목 미카엘(삼천포), 이창우 세례자 요한(팔용동), 공유현 아오스딩(가음동), 정창욱 보나벤뚜라(남지), 조다훈 노엘(장평) 등 9명의 신학생이 착의식을 하였다.

이혼 후 혼인 유대의 해소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흔히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만 해도 성사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장애가 아니므로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는 이혼하면 서로 헤어졌다고 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혼인의 유대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여전히 유효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신자가 재혼을 하면 중혼으로서 혼인장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유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바오로 특전

두 비영세자들이 사회 혼인을 맺은 후 한편만 세례를 받고 세례받지 않은 배우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을 위해 바오로 특전으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143조 참조) 중요한 것은 혼인을 했을 때 양편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하고 혼인 후, 혹은 이혼 후에 한편만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재혼하려고 할 때,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편 모두 세례를 받으면 성사혼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특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특전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1코린 7,14-15)

② 혼인무효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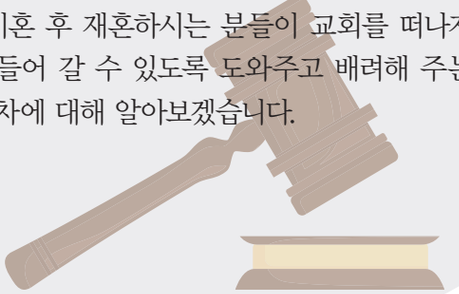
혼인의 무효선고는 형식의 결여와 형식의 결함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의 결여는 신자가 교회의 혼인예식 없이 사회혼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의 유대가 없어 혼인장애에 놓이게 되며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상태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교회 법원이 아닌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는 재판 없이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고, 무효선고 이후 당사자는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의 결함은 교회의 혼인예식은 하였지만 혼인을 하는 과정과 형식에서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식의 결함에 대한 판결은 교회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③ 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소송은 혼인한 두 사람의 혼인유대가 유효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회의 관할권자 혹은 재판관이 사법적 판결 혹은 행정적 판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유대를 무효판결로써 풀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와 면담을 한 후 사제의 지도를 따르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9)라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결혼을 무효로 할 만한 원인과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유대가 유효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사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더 화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인 무효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갇힌 공간 같지만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 있는 팔용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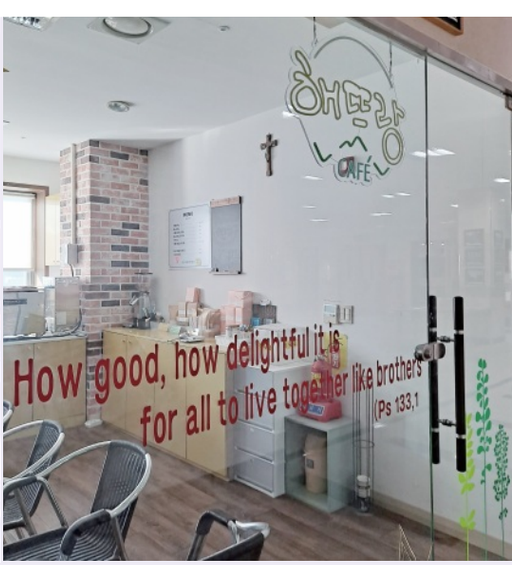
상가가 즐비한 도로에서 팔용에이스 빌딩을 발견하고도 팔용동성당 입구를 찾으려면 조금은 기웃거려야 한다. 대형마트를 1층으로 둔 빌딩 근처에서 차 세울 곳을 조금은 고민하며 머뭇거려야 한다. 하지만 어찌어찌 차를 세우고 이 빌딩 4층에 올라 승강기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요새에 든 것처럼, 평화로운 울타리에 든 것처럼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 펼쳐진다.

통짜 구조물 정다운 공간

강당이자 중앙 로비인 벽면에는 본당의 현황이 속속들이 게시되어 있다. 〈기도해 주세요〉 메모판에는 '신부님 놀아 주세요'란 어린이의 글씨가 눈에 뜨인다. 성전이 있고, 성모상과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 성화 사이에 놓인 초봉헌 기도의 자리가 있다. 무대가 있고, 회합실이 여럿 있다. 사무실이 있고 해뜨랑 카페도 있다.

요새라고 했지만 열린 공간이다. 한곳에 서서 몸만 돌리면 성당의 면면을 모두 볼 수 있는 통짜 구조물이다. 성전 외에는 모두 유리로 된 공간이라 회합실이나 카페에서의 움직임이 자연스레 열려 있다.

수요일 낮미사를 마치고 난 후, 세 개의 회합실에 나뉘어 성경반이 열린다. 레지오 주회는 금요일 낮과 화요일 밤으로 모으고, 수요일 시간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방학 중인 귀한 신학생 이창우 요한은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자매와 매상 올리기에 바쁘다. 회합실을 둘러본 주임 사제는 커피 로스팅으로 자리를 옮겨, 팔용동 요새에 구수한 냄새를 자아낸다. '세계의 커피를 탐구하는 정신'으로 로스팅을 한다는 김길상 안드레아 신부는 자신의 진심이 신자들과 나누는 진심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뭉치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성모상 초봉헌금과 해뜨랑 카페 수익금의 많은 부분은 주일학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제 16년차, 역사의 벽돌은 차곡차곡

팔용동본당은 2007년 1월 중동성당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기에, 많은 신자들이 중동성당에 바탕을 두었다가 여기서 새살림을 일구었다. 신자들은 처음에 찜질방이었던 이 4층에서 벽을 깨고 청소하느라 제정신이 아닌 시간을 보냈다. 성전을 지을 동안 지하를 임대해서 또 청소하고 임시 성전을 마련하여 지냈던 어두웠던 시간도 있었다. 15년 남짓한 시간이니 아직도 그 광경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성경통독반

최금희 데레사는 중동성당에서 꾸리아 단장을 하다가 이리로 와서 꾸리아 단장, 부회장, 현재 다섯 번째 꾸리아 단장을 맡고 있다. 초창기에 꾸리아 단장으로 와서 사목회가 구성되자 부회장을 맡아,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와 살림을 마련했던 때가 너무나도 생생하다. 모든 것을 사고, 바느질을 하고, 만들어 장만했다. 몇몇 자매들이 의기투합하여, 가족들에게 양해를 얻고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숨가쁜 시간이었다. 새 성당을 이루는 자부심이 컸지만, 되돌아보면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도 많았다. 이권자 루치아도 중동에서 왔다. 10여 년 전 이 성당 1호로 딸의 혼배미사를 치르게 되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집안의 대사를 치른 성전과 강당이 언제나 예사롭지 않다. 남편은 이미 사목회장을 역임했고, 이제 부회장을 맡아 본당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 윤효숙 엘리아도 중동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로 와서 어영부영 다니다가, 신자들이 안부를 묻고 챙기는 가족적인 분위기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장이 된 지는 10년이 되었다. 아기 때부터 지켜보던 청소년들의 성장이 참 흐뭇하고, 대면하는 어른들에게는 피붙이처럼 뭐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기쁜 주님의 집이 되기를

친절한 〈팔용주보〉다. 1면 '사진 묵상'란은 사진 한 컷과 짧고 정다운 주임 사제의 글이 쓰여 있다. 2면 '복음 묵상'란도 말씀을 쉽게 풀어 신자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있다. 공지하는 '용의 소식'란은 신자들을 대면하듯 소상하고 친절한 말투다. 교황님의 월기도 지향과 올해 본당 사목 표어 "주님의 집에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시편 122,1)를 매주 게재하여 되새기고 잊지 않게 한다. 공동체의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그 노력들은 본당 처음부터 여기저기에서 이어왔다. 성가대 모집 일화도 재미있다. "아" 소리만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모이자고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용기 있는 성가대에 힘입어 평일에는 아예 반주가 없이도 모두들 '성가 잘하는 성당'이 되었다고 자랑한다. 부부 복사단을 최근에 운영하게 되었다. 아직은 두 팀이지만 성가정을 이루려는 신앙인에게는 상징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교중미사에서 한 달에 두 번은 부부 복사로 미사를 올린다. 외짝 신자들 중에는 조금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김길상 신부는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 주일학교에 참석한 자녀들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부모들의 온돌자리도 마련해 놓았다.

로비인 강당에서의 사목회의

지난해 본당 설립 15주년이었지만 별다른 기념행사를 치르지도 못했다. 후반기에는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자, 소년레지오 '천사들의 모후'도 다시 개최하게 되어, 명례성지에 순례도 다녀왔다. 여름신앙학교도 열었고, 초중고 20명가량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 더 확대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위령 성월에는 이화공원묘지 미사를 마치고 지세포 윤봉문성지를 순례하며 닫혀 있던 가슴을 펴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본당주보성인이 '노동자의 수호자 성 요셉'이라 본당의 날은 5월 1일 즈음에 치르게 된다.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의 잔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빌딩 4층에 갇힌 공간 같지만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 있는 팔용동성당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용백(요한) 신부
2016년 3월 13일

김차규(필립보) 신부
2020년 3월 19일

교구장 서리 동정

춘계주교회의
일시: 3월 13일(월)~17일(금)
장소: CBCK

견진성사
일시: 3월 19일(주일)
장소: 지세포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도 종료 안내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도문은 **3월 19일(사순 제4주일)**로 마칩니다. 그동안 교구청 신축을 위해 기도와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구청사 이전일 변경 안내

일시: 3월 21일(화)~24일(금)
※교구청 이전 관계로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미 안내드린 기간에는 정상 근무합니다.
새 교구청사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구 교구청사의 명칭은 '가톨릭 문화원'으로 칭합니다.

교구/본당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교육
일시: 3월 14일(화) 14: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3월 14일(화) 14: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023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교구청 개강 일정 변경 안내
일시: 개강-**3월 14일(화) 10:00**(마르코 복음서)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장례지도사 2차 교육
일시: 3월 17일(금)~19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또래사도 양성연수 2과정
일시: 3월 18일(토)~19일(주일) 1박 2일
장소: 거제 둔덕시골농촌체험센터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3월 18일(토)~19일(주일) 1박 2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3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3월 19일(주일) 13: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복지관 흔적 찾기'
일시: 3월 31일(금)까지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복지관과 연관 있는 사진과 사연을 모아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는 행사
참여링크: 구글폼-http://bit.ly/4129rTe로 접속 및 QR코드 접속
방법: 구글폼, 기관 메일(mscrc@hanmail.net), 전화, 우편, 방문 접수 중 택1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3월 기도모임
일시: 3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2023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일정: 3월 20일~6월 26일, 15주간
개강일-3월 20일(월) 10:00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3월 13일(월) 13:00	중앙동성당	낮피정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 18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3월 19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상담-필요시 언제나		010·7387·6219(문자 문의)/ 054·976·6219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대성의전 경남장묘권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이탈리아 순례 4월 23일 출발
13박 14일 595만원
■나가사키 순례 4월 24일 출발
3박 4일 119만원
■성모발현지 순례 5월 14일 출발
12박 13일 425만원
bon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3월 25일(토) 10:00~16:30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 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 벨라뎃다)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 피정

일시: 4월 27일(목)~30일(주일) 3박 4일
장소: 수리치골 성모성심의집/(1인실)
피정비: 35만 원/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한릿다 봉사자 010·8599·3127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피정

일정: 4월 29일(토) 15:00~30일(주일) 14:00
6월 10일(토) 15:00~11일(주일) 14:00
7월 15일(토) 15:00~16일(주일) 14:00
9월 16일(토) 15:00~17일(주일) 14:00
11월 18일(토) 15:00~19일(주일) 14:00
장소: 왜관 피정의 집
문의: 010·6791·0071

재속 프란치스코회 영성특강 안내

일시: 3월 11일(토) 11:00~13:00 매월 2주 토요일
장소: 칠암동성당
대상: 누구나
주제: 프란치스칸의 경제
강사: 김일득 모이세 신부(ofm)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3월 15일(수)~5월 31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만 18세~55세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 (1년)교육 이수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 3월 15일(수)~6월 30일(금)까지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 미혼 남, 여 젊은이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청년(유프라) 담당 010·4559·5134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일시: 3월 13일(월) 13:00~17: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사 주례: 박혁호 미카엘 신부
주제: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수 있게 구원해 주실것입니다.(2티모 4,18)

현대인을 위한 토마스 머튼의 영성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토마스 머튼을 연구한 저자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자신이 소화하고 묵상한 머튼의 영성을 담았다. 머튼은 고독과 침묵, 기도와 관상을 통해 자신 안에 이미 살아 계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 머튼의 생애와 영성은 다원화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다.

사랑의 하느님, …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토마스 머튼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삶과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머튼이 처음부터 깊은 영성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았으며, 지적 반항아로서 방탕하게 살았다. 머튼은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의 길을 걸어 수도원에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자신을 불태웠지만, 동시에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거짓 욕망과 영웅적 우월주의에 직면하며 내적 갈등의 시간을 겪었다. 그의 방황과 혼란은 수도자가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하느님을 찾고자 했다. 그의 여정은 물질문명 속에서 소외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지은이: 박재찬 신부
- 그림: 하삼두
- 출판: 분도출판사

판관 기드온의 부르심(판관기 6장 1~32절)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 순례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판관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러 므나쎄 지파의 땅에 속한 오프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프라는 스켐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며, 기드온은 바로 이 성읍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지어 일곱 해 동안 미디안족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족은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아랍족)을 데리고 쳐 올라와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하여 산속의 동굴이나 토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곤궁에 처하여 하느님께 울부짖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소명사화의 양식을 따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족의 눈을 피하여 포도 확에 숨어서 밀 이삭을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말은 불쏘시개처럼 기드온의 깊은 절망감에 불을 붙입니다. 과연 그는 힘센 장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벌떼같은 미디안족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더욱더 절망적일 따름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그 놀라운 권능의 하느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설득합니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기드온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이유로 이 파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천사는 다시 그를 설득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우리의 영웅은 이 말로 금방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천사는 그를 인내하며 말합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돌아가서 부지런히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삶고, 누룩없는 빵을 만들어 그것을 천사가 서 있는 향엽나무 아래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대어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사라지자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님은 평화"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비로소 이 사명을 받아들인 기드온에게 주님은 두 가지 과제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상숭배를 척결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안족을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문 후 주님의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위에 황소를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는 성읍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집안의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합니다. 다음날 새벽 사람들은 바알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 목상은 잘려나갔으며, 새로운 제단 위에는 황소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범인을 색출합니다. 기드온이 범인인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재판을 열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서서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그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를 옹호해 보라고 조롱하면서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하여 기드온은 '바알이 싸우게 하라'는 의미의 여루빠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느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하시면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메뚜기떼처럼 많은 미디안족을 물리치게 될까요?